



어린 매의 비행연습 1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해안가에서 갓 태어난 매 유조(천연기념물 제323-7호, 멸종위기종 1급) 두마리가 비행연습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3~4일 ‘제22회 삼양검은모래축제’ 내일 오후 8시 개막식… 불꽃놀이로 분위기 고조

‘제22회 삼양검은모래축제’가 3~4일 이틀간 이어지며 한여름날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달군다. 삼양검은모래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삼양동연합정년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로 꾸며진다. 축제는 삼양검은모래 해변 일원에서 펼쳐지며 개막식은 3일 오후 8시 해변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개막식 직후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4일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삼양가요제가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

의 무대를 선보이며 다양한 공연도 마련된다. 축제기간에는 검은모래썰질, 맨발 걷기, 시원한 용천수 체험 등 삼양검은모래해변의 특색을 살린 웰빙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 공연, 초청가수 무대, 플리마켓, 먹거리 장터, 해양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축제 경험을 선사한다. 주최 측은 먹거리 장터 가격표시제를 운영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축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중교통·도보·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차 없는 축제’ 운영에도 힘을 기울인다. 백금탁기자

폐업 늘고 빚 상환도 막막한 소상공인들

5월까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121억으로 증가세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 소폭 하락… 전국보다 높아 “창업 전 체계적 교육시스템 통해 지생력 키워야” 지적

빚을 제때 못 갚아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들이 이자나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고,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지역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765건, 지급액은 121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24억2000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연간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억원으로 월평균 16억8000만원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공제금 지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 상황에 대비해 매달 일 정액을 납부한 뒤 폐업하면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제도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폐업공제금 지급은 800건·62억원 수준에서 ▷2020년 1005건·83억원 ▷2021년 1079건·93억원 ▷2022년 1057건·108억원 ▷2023년 1389건·155억원 ▷2024년 1536건·18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보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주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대위변제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5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409억원, 2024년 706억원, 2025년 8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5월까지 2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라 전체 보증금액 가운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비율인 순대위변제율도 상승했다. 올해 1~5월 순대위변제율은 5.54%를 기록했다. 2019년 2.91%에서 지난해 7.33%까지 높아졌다가 올해는 소폭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4.36%)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지원된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를 맞고 있지만 매출 감소와 금융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에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퇴직 후 생계 유지를 위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음식점이나 소매업 등에 뛰어들었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창업 전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창업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는 중소기업의 은행 연체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중소기업 연체율은 1.17%로, 전국 평균(0.90%)을 웃돌며 대구(1.1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고교 입학 설명회

7일 제주시·서귀포시서 개최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오는 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시간을 달리해 진행된다. 제주시는 오전 10시 30분 도교

육청 오라청사 제7회의실에서, 서귀포시는 오후 3시 30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2회의실에서 예정됐다. 이 자리에선 2027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비롯해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현황과 교육 과정 등이 안내된다.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김지은기자

“신임 교육감,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해야”

제주교사노조, 정책 수용 요구

제주교사노동조합이 1일 임기를 시작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을 임기 초 정책 과제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새 교육행정이 현장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

했다. 앞서 교사노조는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 20가지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최근 도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 연쇄 침입 사건을 들며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학교 외부인 출입 안전 문제와 교육활동 보호 체계”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은기자

제주학비노조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어제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오는 4일 서울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제주학비노조)는 1일 제주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사슬을 끊어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만 총궐기대회를 선포한다”고 했다. 제주학비노조는 이날 “30년을 일해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예산 대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며 7~8월 정부 예산에 학교비정규

직 차별 해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 취임한 교육감을 향해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이상 지우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학교 정책의 당당한 주체이자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장의 차별을 해소할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고 의 숙 (22회)



오 은 초 (39회)



장 희 순 (17회)



김 혜 지 (22회)

영예로운 취임 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여자고등학교총동문회 동문 일동